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기계공학과	학 번	201**509	성 명	김민제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하일브론 응용과학대학교	파견학기	2016/1
소요경비	항공료 : 약 110만원 (루프트한자) 기숙사 : 약 30만원 x5 =150만원 보험료 : 약 10만원 x6 (교환학생 필수, 무조건 6개월) 생활비 : 약 30만원 x5 =150만원 (식비 및 생필품) 여행 : 약 300만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순례길) 기타 : 약 100만원 (헬스장, 수영장, 마라톤 등록비 등) 총 : 약 900만원				
주거	대학교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기숙사에 따라 1인실, 2인실, 4인실이 있었고 2인실, 4인실 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방을 사용하고 주방만 공유하는 형태였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주방을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였습니다. 2인실의 경우 공용 화장실 및 샤워 실이 1곳, 4인실의 경우 2곳이 있었습니다.				
룸메이트	독일에 도착했을 때부터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까지 친절하게 도와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무척이나 관심이 많은 독일 현지 학생 이였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 자주 물어보곤 했는데 저도 모르는 역사에 대해 물어보곤 할 때면 제 자신이 무척이나 부끄러워지곤 했습니다. 그 친구덕분에 한국 역사를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내 한국인	기숙사는 신관과 구관, 두 곳이 있었습니다. 구관에는 제가 유일한 한국인 이였고, 신관에는 금오공대 학생 1명, 경북대 1명, 울산대 1명이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비중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파견대학 정보	독일의 대학교는 Universitat와 Hochschule 두 가지로 나뉩니다. 쉽게 말하면 Universitat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대학, Hochschule는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는 대학입니다. 그렇기에 Hochschule는 졸업을 하기위해 한학기의 인턴쉽이 필수입니다. 하일브론 응용과학대는 Hochschule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쉬, 포르쉐, 아우디 등과 연계하여 인턴쉽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내에서 두 대학교의 학사학위는 동등하다고 합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하일브론 대학교의 국제 교류부서는 솔직히 빅약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나라의 수많은 교환학생을 도와줄 교류도우미가 2명 뿐 이였고, 그 2명조차도 OT 이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도 주 4일 오전만 운영합니다. 제가 느낀바로는 다 성인이니 최소한의 것만 도와주고 알아서 해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제교류부서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니 망설이지 말고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주말 및 여가활동	하일브론은 소도시로서 조용한 동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와 함께 헬스장과 수영장을 자주 갔습니다. 헬스장과 수영장의 시설은 매우 추천할 만큼의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비용 또한 아주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의 독일 친구들과 함께 하일브론에서 가보지 못한 곳의 구석구석 까지 뛰어다녔습니다. 때로는 근처 소도시 및 대도시를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멘토 또는	오리엔테이션 당일 2명의 교류도우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교류도우미	
전공	자동차업종으로 취업 할 계획을 하고 있어 자동차공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학기 내내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제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는데 자책은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비록 전공이 어려웠지만 제가 듣고 싶었던 배우고자 하는 의지로 많은 전공수업을 신청해서 수강했고 그로 인해 조금이나마 자동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스케줄	수업 스케줄은 본교에 비해 널널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학기 중간 중간에 공휴일이 많았고 그 공휴일을 이용해 학습이 필요한 과목은 따라가기 위해, 독일 근처 나라를 여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할인 관련	수영장 입장료 박물관 입장료
ISIC카드 활용	수영장과 박물관에 입장할 때 할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으로 이용했습니다.
영어공부	독일이지만 교환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내 대학생 90%이상이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했기에 의지만 있다면 영어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수업 중 영어회화를 중점적으로 하는 수업도 있기에 영어를 배우는 것이 목표라면 수강하기를 추천합니다.
여행	독일만큼 여행하기 좋은 위치의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중심이기에 주말을 이용해 야간버스를 타고 가까운 나라는 기본적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 주말에 여행보다는 수업이 많이 뒤쳐져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보름 정도의 긴 공휴일이 있는데, 그 기간을 이용해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여행하였습니다. 학기를 무사히 마친 후, 프랑스 국경부터 산티아고 순례 길을 완주하였고, 스페인을 여행 후 귀국하였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잡다한 생각 정리도 많이 하였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교통	OT기간 중 비자발급을 받을 때 Semester Ticket를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이 티켓을 이용해 하일브론 내 어디든 버스와 트램을 이용해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숙사에 살지 않더라도 학교를 통학하는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날씨	날씨는 거의 매일이 흐렸습니다. 여름에는 보름정도 빠짝 더운데 언제 비가 올지 몰라 우산을 챙기고 다녔습니다. 학교 내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조차 없어 여름을 지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건조한 날씨 때문에 그늘에 가면 서늘해서 여름을 지내는데 큰 무리 없었습니다.
해외인턴	교환학생을 연계한 해외인턴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일브론 대학의 경우는 졸업을 하기 위해 인턴쉽이 필수입니다. 한국 교환학생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준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추신	학창시절이 아니면 불가능한 너무나도 값진 경험 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고, 그곳에서 얼마나 공부했냐 하는 학업적인 면 보다는 한 학기 동안 낯선 곳에서 스스로 생활해 봤다는 경험이 더 크고 값진 것 같습니다.
보완점	보완점 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친구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가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그 조그마한 성의가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